

이라크 전쟁으로 인류사가 더럽혀져 가고 있다. 이라크 포로에 대한 미군행사의 확대 때문에 이어 미국인 인질에 대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자비한 보복 살해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떻게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삶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혼란스럽다. 물론 전쟁터에서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행동은 현실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지만 동물에게조차 차마 하지 못할 짓을 인간끼리 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세계는 전쟁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인연있는 생명을 앗아간다. 특히 전쟁 속에서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들은 무방비 상태 속에 노출되어 이유 없이 목숨을 빼앗기고 희생을 강요당한다. 체첸과 우고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수많은 생명이 소멸해 갔다. 무엇이 전쟁의 포화 속에 죄 없는 영혼들을 영문도 모른 채 죽여가게 만든 것일까. 자유와 정의라는 가면을 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결과는 아닐까.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전쟁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이산가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쟁과 평화

죽을 낳았는가. 우리는 아직도 가족의 생사를 몰라 눈물을 흘리는 전후 1세대대를 보고 있다. 전쟁의 비극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비극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도 위정자도 절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다. 무고한 시민만이 전쟁의 비극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갈 따름이다. 이러한 전쟁의 비극을 종식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할 종교가 전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사람들은 종교와 이념이라는 커다란 명제 때

문에도 싸우지만 때로는 사소한 일로도 싸운다. 심지어 죽기 때문에 국가간 전쟁을 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가장 비합리적인 수단인 폭력의 행사를 뛰어넘어 가 공평만한 무기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이 두렵기만 하다.

그 이유 중에 국가간 경제적·상업적 이익의 추구라는 속셈이 있을 때는 더욱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 평화스럽고 자비스러운 세상을 원하고 있다. 또한 상생의 삶을 갈

구한다. 불교는 바로 평화와 자비, 상생의 사상이 담긴 가르침이다. 세상을 보다 살기 좋고 맑게 하는 것은 불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행해야 할 의무일 것이다.

얼마 전 개신교의 조용기 목사가 동국대 불교대학원 특별강연회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종교전쟁이 나지 않은 이유는 불교가 장자종교로서 타종교와 적대적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굳이 그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합하여 인류의 평화를 기원해야 할 때이며 불교는 이에 앞장서서 할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얼마 후면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게 된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대부분의 행사가 평화와 나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이제 이웃과 이웃이, 남과 북이,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이념과 종교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상생하는 세상을 기원한다. 이 혼란한 세상이 부처님의 제자로 평화를 되찾고 인류공존의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절실해지는 계절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불교관련 학술연구단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불교관련 학회는 한국불교학회 등 20개에 이르고, 연구원은 불교문화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 등 십 수 개에 이른다. 이러한 학술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학술 활동 또한 활발하다. 2004년 한 해 동안에 열릴 학술대회만 해도 30여 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에는 국제학술회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인도철학회 국제학술회의, 한국불교학술회의,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세계여성불자대회, 세계교수불자 국제학술회의, 미래학불교학회 제1회 국제학술회의 등.

내용면에서도 응용불교나 여성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등 불교학의 외연이 넓어지고 알차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5월 1일과 2일 열린 '2004 한국불교학술회의'에는 6개국 불교학자 160여명이 참가하였고 이 중 외국인 학자만 40여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동아시아불교학회'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불교학 강국'의 문 열렸다

으로 참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동아시아불교학회는 앞으로 계속 단계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국제학술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 쌓여지는 역량과 자료를 체계화하고 그 성과를 계속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불교학계의 고질적 문제점은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단체의 행사에 그치면서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교학계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국내 불교 학술연구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임을 정례화, 그 구성원들의 유대를 강화하며 해외 단체도 단계적으로 참여시켜 간다.

또한 자유주제발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간문제만 해결된다면 불교학의 쟁점이 될 수 있는 특정주제를 정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연구단체들이 각각 외국의 특정불교연구단체와 긴밀한 교류를 맺어 외국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불교학의 발전은 곧 한국불교의 정체성 및 위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박경준(동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17대 국회

백성을 이끌 때에는 항상 바른 도로로 다스릴 것이며, 도로에 어긋나는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순경왕소문경)

권세 없는 민초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권세자들의 처장에 쓰이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담은 실록에는 관리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한 내용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록돼 있다. 남근노소 가릴 것 없이 줄기거리와 알고 있는 '순항전'에도 부도덕한 관리의 모습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결인 행세를 한 암행어사 이몽룡은 탐관오리를 일삼은 남원수령 변화도에게 이런 시조를 읊조렸다.

"순금 전에 담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 장반 위의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늦음이 떨어질 때 민초들은 눈물 쏟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성 또한 높더라."

그런데 최근 국회가 17대 국회의 개헌 경비 가운데 상당액을 불필요한 곳에 지출해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다. 깨끗한 의원사무실을 새로 도장 도배하는 데 9억원의 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 중추기구 중 하나인 예산분석실의 옛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뿐만 아니라 바닥의 카펫을 교체하는 데 4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예산을 편성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 국회가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대를 저버리면 믿음이 사라지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싹트게 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17대 국회가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저버리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 박봉영(예배부 기자)

특별기고

불미전 관한 평론가의 주관적 사고에 부처



전연호  
불교미술가

그동안 국내 유일의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불교미술대전이란 타이틀을 걸고서도 일반 미술작품을 함께 공모하여 불미전의 본질을 퇴락시키고 불교미술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과 불교미술학도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실망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제20회 불교미술대전부터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엿보인다.

실추된 불미전의 위상을 되살리고 궁극적으로 불교미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 미술평론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일반 독자들의 사고를 오도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짙은 글을 올린다.

먼저 예로부터 불교미술은 일반 대중미술과는 엄연히 구분되어 제작돼 왔고 용도 또한 큰 차이가 있다. 불교미술은 일반미술과는 달리 작품 속에 불교사상과 교리를 담고 있어 중생을 교화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성스러운 예배대상의 성물로도 승화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제작은, 물론 작가의 역량과 개성에 따라 작품의 표출방법과 예술성도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제일 먼저 지극한 신앙심과 원력을 가지고 수행하는 자세로 작품에 임하면서 시종일관 혼신을 다하여 작품을 조성하는 데서 일반미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불교미술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부터 1600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무수히 조성 제작되어 전국의 대소 가람과 수행, 기도처 곳곳에 산재해 있고 지금도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시대의 지금도 정교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고려불화나, 빼어난 조형미와 당당하고 성스러운 자태의 석굴암 부처상은 모든 이들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훌륭한 작품들이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작품들이 신앙심의 결집 없이 예술성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일반미술에

시위상을 격하 시킨다고 했는데, 지난 19회 불미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가의 수상소감에는 놀랄게도 수상을 계기로 지금부터 불교미술에 관심을 갖겠다는 뜻이 못할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러면 수 십년을 불교미술에만 전념한 작가들을 제치고 불교미술을 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의 현대작품이 국내 유일의 불교미술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것은 불교적 소재만 엮으면 불교미술로 꼽히며 응모작품수에만 매달리는 주최측의 공평함과 불미전의 본질을 오도하려는 일부 미술관계자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일 것이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불미전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인가? 오히려 불미전의 신뢰성은 실추되고 불교미술을 수학하는 학생들의 의욕마저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늦으나마 조계종 총무원과 불미전 운영위가 불미전의 취지와 본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때,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 불교미술 학도들을 위한 마음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발목을 잡기 보다는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도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미술의 특성 살리고 전통 이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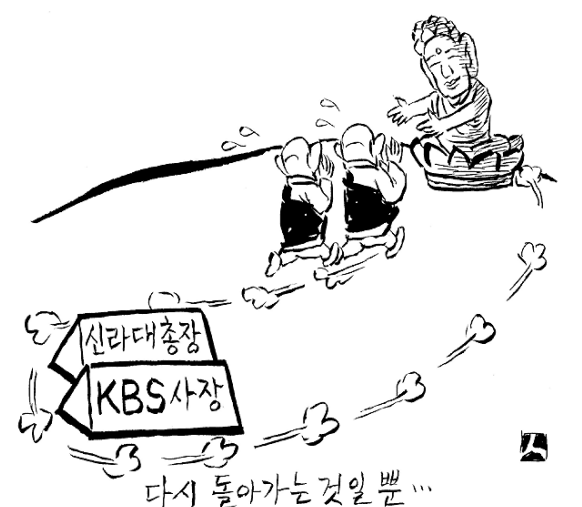
서는 찾을 수 없는 종교미술의 특성이자, 불교미술은 불교미술 그 자체로 봐야지 일반적인 미술의 잣대와 시각으로 평가한다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전체형상을 논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일 것이다.

훌륭한 미술평론가의 밑에서 전통미술은 창의성이 없는 단순한 문화재 복제 수준이고 현대미술만이 창작품인양 비하하는 발언은, 불교미술을 폄하하는 사고에서 기인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전통불교미술을 추구하는 작가들을 과거지향적인 활동취미 운운하는 것도 도저히 무과할 수 없는 자기지향적인 독선이다.

또 현대미술분야를 제외한 불미전은 전

'연대' 만평

심민섭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

우리 가족에게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회대외경제처 성광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챙기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은품을 드립니다.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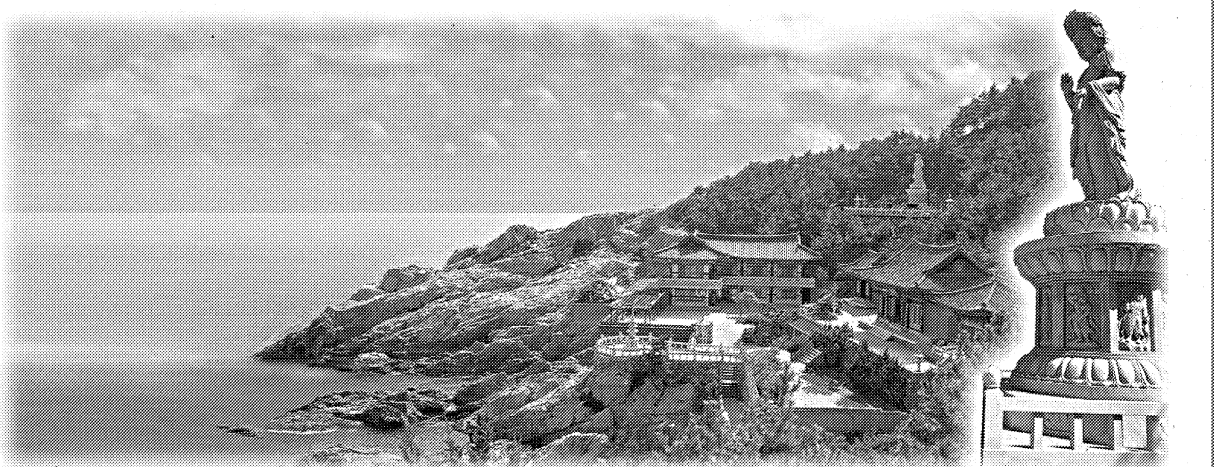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4-3733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